

 <b>(재)울산여성 가족개발원</b>	<b>보 도 자 료</b> <b>PRESS RELEASE</b>	제공일자	2017. 11. 17.(금)
		제공부서	정책연구팀
		연락전화	052)276-8332

**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[울산여성가족 BRIEF] 4호  
‘울산지역 가정폭력 실태 분석’ 발간**

**“ 울산지역은 정서적 폭력, 성학대 등이 타 지역  
실태조사에서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, 부부간의  
원활한 소통과 올바른 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 
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”**

-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(원장 이정희)은 2017. 10. 31. (화) 본 개발원의 2016년 기본연구과제인 「울산시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대책 수립」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‘울산여성가족 BRIEF’ 제4호를 발간했다.
  
- 이번 호는, 2015년에 울산광역시가 전국 7대 특별·광역시 가운데 가정폭력 검거 및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지목되어 울산지역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된 것이 계기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2016년 울산지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의 정도 및 가정폭력 현황 등을 파악했다.

- 이번 울산 실태조사의 응답자 515명 가운데, 부부폭력(부부간의 정서적 폭력, 신체적 폭력, 경제적 폭력, 성학대, 통제, 방어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)의 가해경험은 62.9%, 피해경험은 60.3%로 나타났다. 남성응답자 263명 중에 가해경험률은 62.4%(2013년 전국 55.9%), 피해경험률은 58.9%(2013년 전국 50.5%)로 나타나, 2013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. 그리고 여성응답자(252명)의 경우도 가해경험률은 63.5%(2013년 전국 53.3%), 피해경험률은 61.9%(2013년 전국 49.2%)로,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해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.
  
- 울산지역은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 사소한 다툼에도 신고가 활성화된 편이며, 예전에 비해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의 많은 관심과, 상담권유 및 개입 등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. 이것이 가정폭력 발생 및 재발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.
  
-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정서적 폭력, 성학대 등이 타 지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, 울산지역에는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과 올바른 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부부교육, 부모교육, 성교육, 인권의식교육 등의 인식변화와 관련된 교육이 절실히 보인다.

- [울산여성가족 BRIEF]는 울산시민 누구나 성평등, 젠더, 가족관련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제공하여 가독성이 높으며, 울산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www.uwfdi.re.kr>)에 게시된다.